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평양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영접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기 위해 6월 20일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습근평주석을 맞이하시었다.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조종친선의 새로운 년대기를 수놓으며 평양을 방문하는 습근평주석을 뜨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과 어린이들, 학생소년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국기게양대에는 우리 나라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명전권대사가 비행장에 나오시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나와있었다.

또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있었다.

낮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정초의 뜻깊은 만남에 이어 습근평주석과 160여일만에 평양에서 또다



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두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중한 인사를 나누시었다.

습근평주석은 고대하던 평양방문이 이루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렇듯 성대하게 환영해주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실상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의사사업위원회 관공실 주임, 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게 주약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습근평주석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습근평주석은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습근평주석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어린이들, 학생소년들과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답례를 보내었다.

(2면으로 계속)





(1 면에서 계속)

습근평주석이 탄 전용차는 모터제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향하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주석을 순안구역과 료똥동, 룡흥네거리,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연도의 곳곳에서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습근평주석이 탄 차가 료똥동입구에 들어서자 군중들은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며 오래고도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습근평주석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과 친근감을 안고 조중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조중친선》, 《환영합니다.》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연도는 사회주의한길에서 굳게 손잡고 고틱을 함께 하여온 중국인민에 대한 우의의 정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룡흥네거리에서 무개차에 옮겨타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습근평주석께서 타신 무개차가 지나는 려명거리의 연도에서 군중들은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려정에서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조중친선의 불멸의 년대기에 진정환 우애와 단결의 장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조중최고령도자들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습근평주석은 시민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인파가 설레이는 려명거리를 지나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도착하였다.

조중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참다운 혁명적의리로 소중히 가꾸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은 조중관계사에 빛나는 계승과 발전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호모의 정에 넘쳐있었다.

습근평주석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차에서 내린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에게 녀성 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습근평주석에게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시였다.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에 녀성취주악단의 경쾌한 물동연주와 군중들의 화려한 춤바다가 펼쳐졌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타신 차는 손에 손에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떠나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금수산영빈관 종업원들이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20일 오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방문하시여 습근핑주석과 팽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회담을 하신 다음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조중최고령도자들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습근핑주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교 이번 방문이 조중친선의 불분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계기로 되며 새로운 활력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습근핑주석은 김정은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의 간부들 그리고 평양시의 각계층 군중들이 따뜻이 맞이해주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주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핑주석께서는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

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교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더욱더 의의깊게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들을 제의하시교 의견을 나누시였다.

쌍방은 또한 조중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며 고위급래왕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는 조선반도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교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깊이있게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시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팽려원녀사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6월 20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께서는 환영연회장에서 습근핑주석과 팽려원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핑주석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의 새시대를 빛내여가시는 최고령도자들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중국인민의 따뜻한 우의의 정을 안고 온 습근핑총서기와 팽려원녀사를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평양의 거리마다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성이 존경하는 총서기동지와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조중친선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찌기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공동의 사회주의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불길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참다운 동지적우의와 단결, 지지협

조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서기동지와 지난 4차례의 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야말로 조중친선의 변함없는 핵이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중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총서기동지의 이번 방문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펼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지성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총서기동지의 령도아래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거대한 성과를 거두리라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습근핑주석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습근핑주석은 조선의 당과 정부, 군대의 지도간부들과 수십만명의 조선인민이 성대하고 뜨겁게 환영해주데 대하여 중국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리설주녀사,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가장 진심어린 인사를 드리며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핑주석은 김정은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성과를 이룩하며 보다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는 시종 따뜻하고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함께 6월 20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습근평주석, 팽려윈녀사와 함께 5월 1일경기장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새시대 조종천선의 려정에 휘황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조종최고령도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습근평주석은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 습근평주석과 팽려윈녀사에게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환영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특별히 준비한데 대한 박춘남문화상의 발언이 있었다.

《조종천선은 영원하리라》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속에 조종 두 나라 국기가 게양되였다.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승리와

세계적변혁을 아로새기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행로와 영웅적투쟁사를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놓았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간직하고 영원히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할 우리 인민의 의지를 아름답고 우아한 불동과 기백 넘친 체조,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로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무대에 올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조국을 노래하네》,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하네》, 《새 세계》, 《붉은기

필멸》 등의 중국노래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해나가는 중국인민의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조종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사이에 맺어지고 오늘 두 당 최고령도자들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는 두터운 동지적신뢰와 우의의 정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화폭들이 배경대에 펼쳐지자 장내에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중국민속무용과 환영춤이 특색있게 펼쳐지고 《조종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 등의 글발들이 새겨지는 경기장은 친선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전취한

귀중한 재부이며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라 친선의 밤을 황홀하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함께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주석, 팽려윈녀사와 함께 무대로 내려가시어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습근평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20일 오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습근평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도착하자 전체 당중앙위원회 성원들은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앞에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윈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본부를 찾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환영하시면서 습근평주석과 동지적우의가 넘치는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습근평주석과 팽려윈녀사에게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개를 받으며 습근평주석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조종 두 당사이의 동지적인 신뢰의 뉴대를 두터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 습근평주석과 팽려윈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어 조종 두 당력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평화변영과 통일의 이정표

오늘 우리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장장 70여 년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 원한과 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던 판문점에서 의의깊은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것은 북남관계와 통일 위업수행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준 민족사적인 사변이었다.

또한 9월에는 평양에서 또 다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자주통일의 시대,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

가기 위한 실천강령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주통일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한대 기초하여 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뚜렷이 명시한 자주통일시대의 행동지침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관동되어 있는 우리 민족끼리는 투철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으로서 이미 조국통일운동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

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역사적인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약속하였다.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고있으며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된다.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그것을 떠나 자주통일, 평화변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민족분열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격화로 얻을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 주었다.

우리 겨레가 나아가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민족의 화합과 공동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

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변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을 약속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평화변영과 통일의 리정표이다.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에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자주통일의 밝은 래일이 있다.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이 땅우에 평화변영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거머안아오고야말 것이다.

김수미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남조선 단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19돌을 맞아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들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지만 평화실현에 난관이 조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평화는 외세가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발표 19돌을 맞아 15일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결의문에서 2000년 6월 평양상봉과 공동의 통일원칙과 목표, 실천방도들을 제시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단계로 전환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온 일대 사변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계승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룩된것은 전쟁위기로 치달던 엄중한 정세를 돌파시켜주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의미있는 또 하나의 사변이라고 결의문을 밝혔다.

북남선언리행의 앞길에는 여전히 시련과 난관이 있지만 온 겨레의 힘을 모아 힘차게 리행하며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굳건하고 강렬하다고 하면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우리는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우리는 선언리행이 빈말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동해나갈것이며 6.15시대의 모든 성과물들을 공고히 하고 평화변영의 시대에 맞게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온 겨레가 북남선언들의 덕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나갈것이다.

2.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의 시대를 개척하는데 앞장설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철리인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깊이 새기고 확고히 지켜나

갈것이다.

우리는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 민족자주정신에 역행하는 온갖 사대적, 외세의존적정책을 반대하고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평화와 통일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것이다.

3. 우리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동족대결과 군사적긴장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단호히 반대해 싸워나갈것이다.

우리는 겨레의 통일지향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정신에 배치되는 온갖 군사적대과 동족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짓부서버리기 위

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4.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 단체들과의 련대협력을 실현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사이의 다양한 련대활동을 통하여 북남선언리행 열기가 온 삼천리강토와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뜨겁게 맥박치도록 할것이다.

결의문은 우리모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 남조선 각 계가 주장 —

지난 15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와 《미래사관평화순장집》 행사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분단력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실로 탄생한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주인공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는 민족자주의 표대우에 남과 북이 제도과 체계의 차이를 존중하는 통일을 이루자는 통일의 청사진을 세웠다. 6.15공동선언의 설계도에 기초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탄생했다. 그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싱가포르선언을 위반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남북간 합의리행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용납할수 없다. 통일은 그 주인공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정신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하면서 미국대사관주변을 둘러싸며 행진하는 《평화순장집》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이 대회에 앞서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는 《평화형정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평화형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행사참가자들은 《달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리비아식이나 불량국가를 운운하며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정책을 이어오고있는것이 미국이다. 우리가 미군철거와 수주청산의 들불을 일으켜 조국통일로 나아가자.》,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모든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주정신에 위배되고 남북선언리행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투쟁할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전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대전대중의 힘》이 공동주최로 《통일서포터즈한마당》행사를 열고 《남북정상 합의한 약속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리행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평양바람》, 《통일바람》

남녘의 대학생들이 흰색 바람에 푸른색으로 된 조선반도가 그려진 통일기에 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 사진을 붙이고있다.

얼마나 통일이 절절하고 북녘의 강산을 보고싶었으면 이런 특색있는 행사를 조직하였으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녘겨레의 마음속에 더욱 가까워진 평양, 거기에서 한파를 이은 북녘의 동료들과 열싸안고 혈

연의 정을 나누고 유명한 옥류관의 평양팬틴, 시원한 대동강맥주의 품미도 한껏 느껴보는것이 남녘인민들의 소망이다.

남녘의 각계층에서 일고있는 《평양바람》은 《통일바람》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주인이 되어 통일운동에 떨쳐나 북남선언들을 충실히 리행해나갈 때 벽찬 그날은 더욱 가까와 오게 되리라.



본사기자 현은경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힘도 그 민족자신에게 있다.

지난해에 채택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약속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절차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정신과 함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맥

박치고있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도 여기에 끼여들 자격과 명분이 없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굴절많은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복잡성과 장애만이 조성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날 외세가 집요하

게 강요하는 《대북정책공조》라는것도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불순한 목적의 산물이다. 민족자주, 민족공조가 북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고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방도라면 외세추종, 외세공조는 북남관계를 해치는 독약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제껴놓고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세의 눈치를 보다가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킬수 없고 언제 가도 겨레의 념원과 민족의 큰뜻을 실현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한 이상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말고 민

족자주, 민족공조의 대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리기적이며 침략적인 외세를 중시할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여야 하며 외세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앞세워야 한다.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르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는 정당한 길이다.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온 겨레의 정세하에서 우리 겨레가 내외반동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변영과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실 수 있는 바를 얻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 단체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

보도에 의하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9돌을 맞아 자주통일, 평화변영운동대회가 15일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설것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해 력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채택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어 자주통일의 길이 열리겠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우리 민족앞에는 남북선언들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변영

의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성명을 밝혔다.

그러자면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여 선언리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정과적리해관계를 앞세우면서 거족적인 선언

리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와 선언리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관계개선의 흐름에 배치되는 적대행위

지난해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사를 담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우리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인류는 그것이 계속리행되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란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있다.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침투 및 대테러 훈련》, 《혹한기전술훈련》과 같은 군사행동들을 벌려놓은 남조선군부당국은 얼마전에도 《을지태극》이라는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렸었다. 이것도 모자라 남조선군부당국은 미국과 함께 허울만 꾸민다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

행하면서 은연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년례적》, 《방어적》이란 간판을 내리고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 연습을 비롯한 각종 훈련들을 강행한것이 바로 그러하다.

남조선당국은 6일부터 21일까지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주도의 다국적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19—2》에 수송기 2대를 비롯한 공군무력을 파견하여 전쟁학박내를 과했으며 앞으로 8월에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대체한 《동맹 19—2》 훈련도 진행하려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는 얼마전에도 미군특수작전사령관과 《한미동맹》발전 및 연합방위태세강화방안을 모의하였다.

이 모든것이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대행위로서 조선반도에 모처럼 깃든 평화와 안정의 기류를 파괴하는 음모적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시기의 훈련보다 규모나 기일이 작다고 해서 그도발적, 침략적성격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작은것이 모여 큰것을 이룬다고 여러형식의 각종 군사연습들을 통해 북침전쟁태세를 완전히 갖추자는것이 남조선군부당국의 속심이다.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각종 군사연습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겠는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앞에서는 《북남군사분야합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해 골갈 떠들어대고 뒤에서는 동족의 등에 칼을 박으려는 남조선군부당국의 이러한

적대는 그들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과연 관심이 있는가 하는것을 따져볼수 없을것이다.

백해무익한 군사연습강행으로 얻을것이란 온 민족의 지주와 규탄뿐이다.

북과 남이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고 확약한 이상 남조선당국은 지금처럼 미국과의 군사훈련강행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는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북남관계개선의 근본문제에서 벗어나 시시결렬한 부차적인것들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그 실천적행동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은철

남조선 《국회》가 여야세력간의 치열한 대결로 하여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이 통일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주요법안들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는것을 트집잡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참가를 전면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리는데 있다.

남조선의 정계를 비롯한 각계는 《자한당》의 《장외투쟁》은 사실상 도수를 넘어서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든 《자한당》이 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긴급없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나가고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주요법안의 신속처리안건정철회 등 이리저리한 조건부룰 내세우면서 《국회》복

귀를 한사코 거부해나서고 있다.

《자한당》의 고의적인 책동과 그로 인해 계속되는 《국회》마비사태로 하여 추가에산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남조선경제와 민생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추가에산안의 《국회》심의문제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추가에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도 수십일이 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련일 거리가 나가 집회를 벌려놓고 당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이 무소득층으로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완쾌하였다. 경제

도 폭망했다. 《무리한 돈돌기》인 추가에산안을 무조건 막았다고 하면서 지랄발광하는통에 추가에산안은 《국회》심의도 해보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대만 제2인 《민생》에 대해 운운하던 《자한당》 패거리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관련법안들을

단의 부정부패사건,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등 저들에게 불리한 각종 악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모면해보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국정감사》 참가를 거부하고 《국회》를 마비시킨것이 단적인 실례이다.

이런에도 마찬가지로 민생관련법안들을 《국회》에 묶어놓고 현 《정권》의 《국회》운영에 제동을 걸어 경제와 민생을 더욱 파괴하고 그 책임을 현 당국에 들씌워 저들에게 쏘린 민생의 비난을 만데로 돌리고 재권력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속심이다.

남조선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색은 정당 《자한당》을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 울려오는데는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

추가에산안의 《국회》심의문제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추가에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도 수십일이 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련일 거리가 나가 집회를 벌려놓고 당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이 무소득층으로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완쾌하였다. 경제

외면하고있는것은 그들 스스로가 민생의미당, 민생유린당이라는것을 드러내놓은것이다.

력대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저들의 반역통치실시와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의 도구로 리용해왔다.

박근혜집권시기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정부패사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

민가들은 황교안이 지휘한 《장외투쟁》이 별로 소득없이 끝났듯이 평가되고있어 당내부에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이 틈을 타서 각계 파벌이 이목을 끌기 위한 수법의 하나인 《총격적인 막말》에 더 매달릴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고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내에서 막말이 근절되는 코질이 굳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예로부터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려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한 인간의 운명이 그러할진대 민생의 바다우에 떠있는 쪽배와도 같은 정당의 운명이 어찌하리라는것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심을 등지고 상대를 야비하게 극단적으로 헐뜯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련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도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비난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정치했내기

《자랑스러울것이 없는 5공검사》, 《과거에 얽매어 있는 우파》, 《천두환군사정권시기의 공직자출신》, 《성숙되지 못한 정치했내기》, 《박근혜의 남자》 ...

남조선의 《자한당》 대표 황교안에 대한 세간의 평가이다.

지난 2월말 그가 《자한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차지하였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정치신인》으로서 기성정치인들과 구별되는 《신선하고 안정적인 품격이 있다》는 여론을 내뿜고 보수세력들속에 황교안이 《보수의 구심점》으로 불리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100여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있는것이다. 정치력을 얼마나 잘했으면 100여일만에 《했내기》라는 야유까지 받게 됐다.

황교안이 정치세력에 전혀 부대끼보지 못한 했내기이고 앉을자리, 설자리를 가리지 못하는 정치미숙이라는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누구나 다 말하는 사실이다.

그의 미숙하고 추한 행동거지가 제 몫을 그렇게 만들었다.

지난 4월 《국회》 의원보충선거때 아랫것들이 시키는 대로 새빨간 《자유한국당》 상징옷을 차려입고 추곡경기장안에 들어가 관객들앞에서 해괴하게 놀아대다가 추곡협회 비난과 《공직선거법》 위반론란을 일으켰던것은 잘 알려져있다.

불교 행사에 참가하여서는 그리스도교인자로 자처하며 불교례법을 지키지 않아 불교계의 비난을 사는가 하면 서민홍대를 피우며 쓰레기수집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려든 수지도 당하였다.

황교안이 《성숙되지 못한 정치했내기》라는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그가 제2인 상식이하의 망발들도 정치적미숙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다.

《자한당》 대표로 선출된 후 현 집권자를 극한의 대변

인》이다. 군부는 《정부》와 립장을 달리해야 한다 등으로 상식과 도를 넘는 망언을 마구 늘어놓아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씨가 먹지 않은 발언들로 하여 황교안은 《발의 말에는 알맹이가 없고 감동이 없다》, 《박근혜처럼 참모들이 썩은 원고를 그대로 외우고있다》. 《비평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정치가라하면 마땅히 머리에 든것이 있어야 하고 발언과 행동이 신중하고 로숙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초보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하는 행동거지가 경망스럽기 짝이 없는 황교안을 가리켜 사람들이 《성숙되지 못한 정치했내기》라고 비꼬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황교안은 오래동안 공안계통이나 총사해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벌써부터 황교안이 출창 비난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가 뒤따를것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참새가 황새걸음을 하면 가래가 찢어진다고 했다. 자질도 능력도 없는 황교안파위가 예상초 정치무대에 나선것부터가 잘못된것이다.

박호남

죽어도 못 고치는 패륜정당의 막습

죽어도 못 고치는 병중의 하나인것 같다.

이렇듯 입만 열면 세인을 경악케 하는 막말만 쏟아내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남조선 각계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을 가리켜 《막말수도꼭지》, 《막말배설당》, 《침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차고넘치는 패륜정당이라고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인간스레기들이 정치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권력을 쟁탈하겠다고 날치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에 있겠는가.

실로 민심과 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남조선사회의 비극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은철

바빠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막말론란을 일으킨 자들을 《정계》해야 한다는 다급한 소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망언과 망동짓에 이끌린 난 추물들만 모인 역적정당에서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패륜정당의 구역질나는 체질이 달라질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쓴다고 뱃새를 피우던 황교안자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후에는 상식과 도를 넘는 망언을 일삼고있다.

웃음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고 당대표판자가 이 정도이니 그 밑에 있는자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

사언론 하였다.

과시 수준이하의 인간들이 모인 《자유한국당》에서 만 나올수 있는 막말이라 하였다.

이전에도 《자유한국당》 것들은 현 집권자를 《북대변인》, 지지자들을 《창녀》, 광중인민봉기희생자들을 《목도》, 유가족들에 대해 《괴물집단》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있다. 또 《세월호 참사유가족들이 오히려 동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침담들이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고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각계층을 크게 분노케 하였다.

보건데 막말은 《자유한국

문가들은 황교안이 지휘한 《장외투쟁》이 별로 소득없이 끝났듯이 평가되고있어 당내부에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이 틈을 타서 각계 파벌이 이목을 끌기 위한 수법의 하나인 《총격적인 막말》에 더 매달릴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고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내에서 막말이 근절되는 코질이 굳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예로부터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려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한 인간의 운명이 그러할진대 민생의 바다우에 떠있는 쪽배와도 같은 정당의 운명이 어찌하리라는것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심을 등지고 상대를 야비하게 극단적으로 헐뜯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련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도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불과

100여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있는것이다. 정치력을 얼마나 잘했으면 100여일만에 《했내기》라는 야유까지 받게 됐다.

황교안이 정치세력에 전혀 부대끼보지 못한 했내기이고 앉을자리, 설자리를 가리지 못하는 정치미숙이라는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누구나 다 말하는 사실이다.

그의 미숙하고 추한 행동거지가 제 몫을 그렇게 만들었다.

지난 4월 《국회》 의원보충선거때 아랫것들이 시키는 대로 새빨간 《자유한국당》 상징옷을 차려입고 추곡경기장안에 들어가 관객들앞에서 해괴하게 놀아대다가 추곡협회 비난과 《공직선거법》 위반론란을 일으켰던것은 잘 알려져있다.

불교 행사에 참가하여서는 그리스도교인자로 자처하며 불교례법을 지키지 않아 불교계의 비난을 사는가 하면 서민홍대를 피우며 쓰레기수집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려든 수지도 당하였다.

황교안이 《성숙되지 못한 정치했내기》라는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그가 제2인 상식이하의 망발들도 정치적미숙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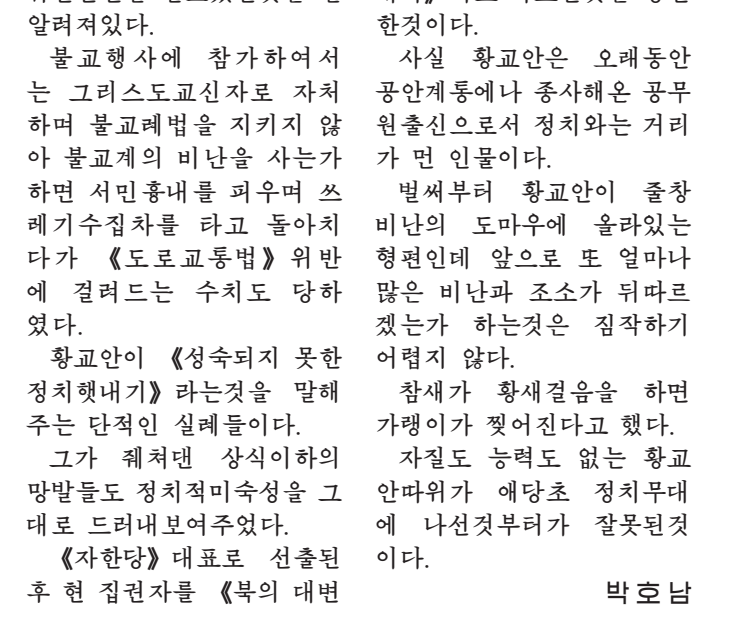
《자한당》 대표로 선출된 후 현 집권자를 극한의 대변

사실 황교안은 오래동안 공안계통이나 총사해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벌써부터 황교안이 출창 비난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가 뒤따를것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참새가 황새걸음을 하면 가래가 찢어진다고 했다. 자질도 능력도 없는 황교안파위가 예상초 정치무대에 나선것부터가 잘못된것이다.

박호남



집안이 망하려면 개가 짚구를 쓰고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요즘 이남의 《자유한국당》이 늘어대는 꼴은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현 이남 당국을 《좌파독재》로 몰아대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수 없게 사상건전 제도만 걸고있다. 최근에는 현 집권자에게 《북대변인》,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청와대를 폭파》 하라는 폭언까지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하니? 참으로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과연 이남에서 누가 독재 세력이고 누가 지금도 독재 하고있는것인가. 사실을 까밝혀본다.

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쥐고 온갖 독재를 다 일삼다 보니 남이 하는 행동도 《독재》로 보이는것이다.

세상을 살다 《좌파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현 《정부》는 적복부 따지고보면 독재의 희생양이었다. 조분향으로 박근혜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거

《좌파독재》라령을 한다

이남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싹해하는것은 《독재》라는 말이다. 독재의 쓴맛을 너무도 톡톡히 보았기때문이다. 그것도 한두해가 아니라 수십년간 독재통치에 짓눌려 살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독재의 형태도 다른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으리만치 다양하다.

정찰독재, 군사독재에 이어 《문민》 독재라는것도 출현했다. 나중에는 《치마두른 독재》까지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썩적하게 만들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최경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생즉유당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하였는가.

가관은 이남에서 독재정치 의 표본을 만들고 명맥을 이어온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모두 지금 《좌파독재》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하니? 참으로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과연 이남에서 누가 독재 세력이고 누가 지금도 독재 하고있는것인가. 사실을 까밝혀본다.

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쥐고 온갖 독재를 다 일삼다 보니 남이 하는 행동도 《독재》로 보이는것이다.

세상을 살다 《좌파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현 《정부》는 적복부 따지고보면 독재의 희생양이었다. 조분향으로 박근혜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거

《좌파독재》라령을 한다

이남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싹해하는것은 《독재》라는 말이다. 독재의 쓴맛을 너무도 톡톡히 보았기때문이다. 그것도 한두해가 아니라 수십년간 독재통치에 짓눌려 살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독재의 형태도 다른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으리만치 다양하다.

정찰독재, 군사독재에 이어 《문민》 독재라는것도 출현했다. 나중에는 《치마두른 독재》까지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썩적하게 만들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최경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생즉유당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하였는가.

가관은 이남에서 독재정치 의 표본을 만들고 명맥을 이어온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모두 지금 《좌파독재》

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쥐고 온갖 독재를 다 일삼다 보니 남이 하는 행동도 《독재》로 보이는것이다.

세상을 살다 《좌파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현 《정부》는 적복부 따지고보면 독재의 희생양이었다. 조분향으로 박근혜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거

《좌파독재》라령을 한다

이남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싹해하는것은 《독재》라는 말이다. 독재의 쓴맛을 너무도 톡톡히 보았기때문이다. 그것도 한두해가 아니라 수십년간 독재통치에 짓눌려 살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독재의 형태도 다른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없으리만치 다양하다.

정찰독재, 군사독재에 이어 《문민》 독재라는것도 출현했다. 나중에는 《치마두른 독재》까지 생겨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썩적하게 만들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최경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생즉유당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하였는가.

가관은 이남에서 독재정치 의 표본을 만들고 명맥을 이어온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모두 지금 《좌파독재》

저들이 오래동안 권력을 쥐고 온갖 독재를 다 일삼다 보니 남이 하는 행동도 《독재》로 보이는것이다.

세상을 살다 《좌파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현 《정부》는 적복부 따지고보면 독재의 희생양이었다. 조분향으로 박근혜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거